

# 전남, 스마트팜 이어 스마트양식 유치도 실패

### 사유지 매입·100억대 시설 '실패 요인'...9월 재도전

전남도가 정부 대형 공모사업인 스마트팜에 이어 스마트양식 유치에도 실패했다. 농업도시와 수산도시를 표방하는 전남도가 의욕만 앞서고 공모 준비와 대응 전략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로 '부산시'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신안과 경남 고성 등 3곳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양식장과 대량 생산단지, 가공·유통·수출단지,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연관 산업이 모여 있는 대규모 단지다. 그동안 소규모 스마트양식장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첨단기술이 집적되는 양식장은 처음이다. 해수부는 부산시와 앞으로 3년간 총 400억원(민자포함)을 투입해 스마트양식

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양식장을 조성하고 취·배수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배후부지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양식 조성 사업에 도전했던 전남도는 스마트팜에 이어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전남도는 신안군 암태면 단고리 5만 8492㎡에 스마트 새우양식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부지는 군유지는 4만 625㎡, 사유지는 1만 7867㎡다. 유치 실패는 군유지와 사유지로 구성된

양식장 부지(농지) 중 사유지를 아직 매입하지 못한 것이 한 요인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새롭게 도입하는 시설이 100억원대 장비인 탓에 과다 비용이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오는 9월께 있을 추가 공모에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수부가 올해 전국적으로 3곳의 스마트양식 조성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준비를 철저히 해 유체에 제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북 친선 예술단 베이징 도착...공연 리허설

북한 친선 예술단이 24일 베이징에 도착해 3년여 만에 재공연 준비에 돌입했다.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 담당 부위원장과 현수철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은 이날 오전 11시(현지시간) 임시 열차 편으로 베이징 기차역에 도착했다. 방한모에 군복 차림의 북한 예술단원들은 기차역 플랫폼에 깔린 빨간 카펫에 내리며 중국 측의 각별한 의절을 받았다. 이날 기차역에는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나 나와 영접했으며 중국 무관 등 중국 측 관리들도 대거 모습을 보였다. 리수용 부위원장은 중국 측이 제공한 차량으로 조여대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예술단원들은 7대의 버스에 나눠타고 숙소인 수도 대반점(호텔)에 짐을 풀었다. 이날 베이징 기차역과 수도 호텔에는 수많은 경찰 인력이 배치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때에 비금가는 삼엄한 통제가 이뤄졌다. 280여명의 예술단은 국가 공훈 합창단과 삼지연 악단 등 평양 예술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날 오후부터 곧바로 공연 리허설을 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오는 26일과 28일 열릴 것으로

보고 중국 관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예술단의 이번 공연은 지난 2015년 12월 북-중 관계가 한창 경색됐을 당시 현수철 단장이 이끈 모란봉악단의 방중 공연을 시작으로 2017년 10월 북-중 간 공연 내용 등을 놓고 불협화음이 일며 공연단이 갑자기 귀국해 버려 북-중 갈등이 커진 적이 있다. 북-중 양국은 모란봉악단 철수 이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등으로 관계가 냉각되면서 국가 차원의 예술단 교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10일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4차 정상회담을 하며 북-중 간 전략적 밀월 관계를 강화한 터라 이번 공연은 중국 지도부의 참관 속에 성대하게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해 3월 북-중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뒤 4월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 열린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송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이끄는 대규모 중국 예술단을 보내 국빈 대접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사법적폐청산 광주공동행동 회원들이 24일 광주시 동구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환영하며 민생을 외치고 있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 "사법농단 사태 최종 결정권자"

### 양승태 왜 구속됐나

법원이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이었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곧 양 전 대법원장을 두고 '이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라고 한 검찰 주장을 법원이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통상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범죄혐의의 소명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망의 염려를 주

요 판단 기준으로 여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도주 우려를 제외하고는 검찰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유를 사실

상 모두 받아들인 셈이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번에는 법원과 검찰 간 '사건 프레임'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 이런 다툼은 지난날 초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 드러난다. /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을 심리한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 민주 "사법 정의 계기" 한국 "사법장악 경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24일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사법 정의'라는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정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리던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법 상식에 맞는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새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

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며 "법원은 공정한 재판으로 기록권의 보루가 아닌 정의의 보루가 돼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데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사법부는 이를 계기로 불신과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그래도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결정"이라며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70년 오욕의 역사를 씻을 수 있도록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의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와 국민들께 참담함을 안겨주는 사건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 다른 처벌로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노인연령 70세 상향 논의 시작해야"

###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 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 기조 강연자로 나서 노인 기준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25년에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30년에 세계 1위로 올라서 일하고자 하는 노인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경우, 2040년 생산가능인구는 424만명 늘고, 고령인구 비율은 8.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현대의 노동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하면, 36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0% 내외지만, 은퇴시기를 5년 연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향상시키면서 출산율을 증가시키면 향후 10년 이내에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 후반, 20년 내에는 1%를 유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몇살부터 노인이냐고 물어 보면 대개 70세 이상을 이야기하지만, 법적으로는 65세이고 일부에서는 퇴직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어 사회적 인식보다 노인연령이 너무 낮게 설정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노인연령 기준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오천 경매

▶ 단독 / 공동투자 하실 분!  
1억원 이상  
▶ 특수비법 배우실 분!  
임장비 등 1200만원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H. 010-3605-5000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부동산 매매

### ●남악 신도시●

**지 번**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08번지

**면 적** 12,510.5㎡ (3,785평)

**매매가** 230억원

**용 도** 일반상업지역, 대로변접 사거리코너

**권장업종** 예식장, 관공호텔, 아울렛, 오피스텔, 창고형 마트 등

**전남도청 앞 남악신도시의 최고 핵심상권!!**

※본물건은 전속중개물건임

## (주) 조은일부동산

☎ 010-3111-5087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 현경면 시골주택 대지 691㎡ 주택 63㎡ 3500만원
- 화순군 동면 서성리 656㎡ 경관 아주좋은 1억1880만원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대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728㎡ 전원주택·주말농장 적합 1억7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무안읍 율림·다세대부지 군청 옆 1031㎡ 투자에도 좋은 2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순정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서구 생촌동 윤천저수지 부근 2층 주택 땅 105㎡ 새주택 118㎡ 2억6천
- 장성 남면 덕성리 주거지 588㎡ 광주인근 교통좋은 1억8500
- 강진군 드림평평관광농원 땅 10194㎡ 시설완비 6억5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4861㎡ 창고·가든·매장 등 적합 6억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땅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옥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무안군청 앞 대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여 연 1500 임대 4억
- 회령동 건물 대지 388㎡ 건평 581㎡ 보증금 1억2천 월 700원 수입 13억8천
- 완도를 정도리 땅 4024㎡ 건평 1203㎡ 연수원 등 적합 10억
- 용봉동 고시텔 대지 357㎡ 건평 830㎡ 은행5억 매도 8억5천 조정가능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점 토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접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특급물건**

- 충장로 5가 핵심상권 대지 261㎡ 건평 1128㎡ 은행11억 매도 25억
- 목포시 상동 땅 1683㎡ 건평 1190㎡ 은행 3억8천 노인시설 적합 10억
- 정읍시 신대민은 1213㎡ 건평 694㎡ 대세대 적합 은행 3억7천 매도 4억3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87기)	광주교육대학교(197기)
모집/과정	·금요일 오전반 2019. 3. 8(금) 09:10(중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9. 3. 9(토) 09:10(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9. 3. 8(금) 14:10(중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9. 3. 9(토) 14:10(고급반)
모집기간	2019. 1. 25(금) ~ 3. 9(토)	
수업기간	2019. 3. 8(금) ~ 2019. 8. 1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 ~ 13:00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2단계 연속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li> <li>·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li> <li>·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li> <li>·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li> <li>· 연속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li> </ul>	
수강료	₩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 148-107-307803	₩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 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 062) 950-3582-4 ·지도교수(선병광) 010-3614-4160	·문 의 : 062) 520-4243 ·지도교수(선병광)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